

GTX 사업,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

- 13일 오후 GTX 서울역 현장 주한공관 외교관·외신기자 현장설명회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(Tunnel Boring Machine : 터널 굴진기)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*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**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.

* 아랍에미리트(UAE), 영국, 이집트, 일본, 체코 등 5개국 10여명

** 블룸버그 LP(미국), 에포크 타임스(미국), NNA(일본), 골든 브리지(중국), 스푸트니크(러시아),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(대만), 아리랑 국제방송(한국), 코리아중앙데일리(한국) 등 8개 매체 10여명

- 이번 현장 설명회는 ‘대심도 철도사업’과 ‘TBM 공법’에 관심 있는 외신 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다.

< 대심도 철도사업 >

- 과밀화된 수도권의 지상·지하 공간의 물리적 제약 극복을 위해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 철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,
 - 지장물 접촉 및 사유지 간섭을 최소화하고, 노선 최적화(직선) 설계를 통해 표정속도 100km/h(최고 180km/h) 이상의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

< TBM 공법 >

- 터널 굴착 시, 화약을 통한 발파 대신 특수 제작된 기계를 이용하여 굴착하는 TBM(Tunnel Boring Machine) 공법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
 - TBM 공법은 발파 공법 대비, 소음과 진동이 적고,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며, 굴착 속도가 높아 공사기간의 단축도 가능

-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,
 -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, 콜롬비아,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.

-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**주한국일본대사관**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“현재,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**대심도 터널 공사**가 진행되고 있고, **고속도로 지하화**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”이라며,
 - “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설명회 참가자들은 **올해 연말 개통**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-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,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.
- 특히,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,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복잡한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,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GTX-A ‘수서~동탄’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881)
		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